

蒙元과 濟州馬

陳 祝 三

吳富尹：譯

目 次

- | | |
|----------------------|-------------------------|
| I. 前 言 | III. 耽羅 牧場의 設置 및 經營과 貢獻 |
| II. 蒙古점령이전 濟州의 產物과 馬 | IV. 結 論 |

I. 前 言

한국의 지리서적은 牧畜業이란 말만 거론하게 되면 자연「미약한」이란 형용사가 붙게 되지만「濟州島」만큼은 그 예외이다. 바꾸어 말하면 제주 이외의, 기타 지방은 목축업의 지역이라 부르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말이다. 농업기계화의 시대로 접어들기 이전의 1973년을 예로 들때 한국에는 소 146만6천2백여頭, 젓소 5만2천4백여두, 말 1만3천백匹, 돼지 1백59만4천7백여두가 있었다. 이 가운데 말은 70% 이상이 제주로부터 온 것이며, 그 주요 용도는 농경이나 운수였다.¹⁾ 이처럼 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절대다수의 말이 제주로부터 공급되

1) 이찬 편저 《韓國地理》 서울 영지문화사, 1976, pp. 72~73.

던 사실은 독립(1945)이후에 비로소 나타났던 현상은 결코 아니다.

일찌기 지금으로부터 260년전 朝鮮國王 肅宗은「耽羅地圖」라는 詩가운데에서「歲貢驢騾駿種多」²⁾라 한적이 있다. 耽羅란 곧 지금의 濟州이다. 그리고 濟州의 貢馬사실은 지금으로부터 600여년전 朝鮮學者 權近(1352~1409)의「耽羅」詩 가운데 이미 나타나고 있으며,³⁾ 金宗直(1431~1492)의「毛羅歌」14首 가운데 5번째 首에서도「一自胡元監牧後, 驢騾歲歲入天閑」⁴⁾이라 하여 胡人에 의해 건립된 元朝가 濟州에서 放牧을 감독한 후로부터 名馬는 해마다 君王의 馬廄로 보내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는 곧 濟州에서 名馬가 養産하게 된 이유가 바로 元朝의 監牧 결과에 의한 것임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그러면 元朝의 監牧이 있기 이전 濟州에는 이미 牧馬가 실시되고 있었는가. 그 馬는 原産이었던가. 自然환경은 이에 적합하였는가. 그리고 養馬法은 어떠하였는가. 本文에서는 주로 濟州馬와 元朝와의 관계 특히 元朝가 濟州馬에 끼친 공헌을 고찰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의 해답을 구하려고 한다.

Ⅱ. 蒙古점령이전 濟州의 産物과 馬

牧馬는 우선 환경을 중요시 한다. 앞서 거론한 한국의 地理書籍들 가운데서는 한국의 축산업이 발달하지 못한 이유로 토지는 주로 양곡생산에 활용되고 있어 사료작물을 재배할 만한 잉여분이 없고 고온다우의 여름철 기후는 목초 재배에 적합하지 못할 뿐만아니라 또한 겨울철은 너무 길어 많은 사료를 저장해야만 하는 점등을 들고 있다.⁵⁾ 그렇지만 濟州도의 自然環境 역시 이와 같

2) 肅宗大王의〈耽羅地圖〉全文은 ‘在窮溟號毛羅, 茫茫巨海杳無涯, 品奇橘柚同仙果, 歲貢驢騾種多’이다.

3) 權近의〈耽羅〉詩全文은 ‘蒼蒼一點漢孛山, 遠在洪濤浩渺間, 人動星芒來海國, 馬生龍種入天閑, 地偏民業猶生遂, 風使商帆任往還, 聖代職方修版籍, 此邦雖陋不煩冊’이다.

4) 金宗直의〈毛羅歌〉다섯번째 首의全文은 ‘漢孛漂渺通房駟, 雲綿離披水草間, 一自胡元監牧後, 驢騾歲歲入天閑’이다.

5) 〈韓國地理〉pp. 72~73.

은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濟州는 옛날 島夷라 불리웠고, 또한 한라산이 있어 瀛州 혹은 東瀛州라 불리우기도 했다. 그리고 토착전설이 처음 毛興穴에서 근원한다고 相傳하므로 毛羅 혹은 同音異記의 牟羅 및 涉牟羅라 불리우기도 했다. 相傳하는 바에 의하면 高乙那王 때(B.C 2337) 처음으로 毛羅라 불리우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 후 高乙那 제15대孫 高原王에 이르러 高厚 및 그의 동생 高淸·高季 등 3형제가 배를 만들어 바다를 건너 新羅에 朝貢하였는데(B.C 53) 이때, 배가 耽津이란 항구에 정박했다고 하여 국명을 耽羅라 고쳐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이외에도 옛날 濟州를 지칭하는 명칭으로는 涉羅·耽牟羅·耽羅·托羅·擔羅·耽浮羅등 여러 다른 명칭들이 있다.⁶⁾ 濟州는 高麗 肅宗 10년(1105) 고려의 관도로 편입되어, 耽羅君으로 되었으며, 疑宗 7年(1153)에 가서는 耽羅縣으로 改名되었다. 그 후 忠烈王 3年(1277)에 이르러 元朝는 재주를 牧場이라 고쳐 불렀으며, 同王 21年(1295)에 가서야 고려정부는 처음으로 耽羅를 회수하여 濟州牧으로 삼았다.

濟州는 해발 1950미터 높이의 한라산을 중심으로 사면이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는 섬으로, 한반도 남단 약 150km의 남해상에 위치해 있으며 또한 한반도와 일본의 九州사이에 介在해 있다. 경도 및 위도상으로는 동경 126도 58분~126도 10분, 북위 33도 12분~33도 34분 사이이다. 섬의 모양은 타원형으로, 동서길이는 80km이고, 남북간의 길이는 40km. 면적은 약 1811 평방미터이며 해안선의 길이는 254km이다. 또한 섬 주위에는 약 40여개의 부속도서가 있다.

섬의 主峯은 死火山인 한라산으로 산의 정상은 분화구인 백록담이며 그 사방에는 별집과 같은 360여개의 기생화산이 있다. 식물분포를 보면 한국인들은 한라산을 식물의 寶庫라 지칭할 정도로 온대·냉대·한대식물들이 수직형식으로 군집되어져 있다. 山勢는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는 편이며, 지질은 多孔의 玄武岩에 속한다. 산의 윗부분은 화산재로 덮혀져 있다. 토양의 대부분

6) 耽羅星主遺事編纂委員會編 《耽羅星主遺事》 고려서적주식회사 1979 pp. 59~61.

은 용암이 풍화된 적갈색 화산토이지만 貝沙沙漠도 있다. 하천은 짧고 협소하며 말라 있다. 강수량은 연평균 1400mm이나 대부분 6월에서 9월사이에 집중되어 있다. 기온은 해양성기후의 영향으로 겨울철 1월의 평균기온은 섭씨 4℃, 여름 8월의 평균기온은 26℃로 비교적 겨울은 따스하고 여름은 시원한 편이다.⁷⁾

이처럼 제주는 지형이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는 데다, 기온이 알맞고 식물 또한 풍부하게 자생하고 있어 확실히 목축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섬이 작고 바람이 많아 소금끼가 있는 해풍이 목축에 다소 지장을 주고 있을 뿐이다.

『瀛州誌』에 의하면 옛날 제주에 三神人이 출현할 당시 東海의 碧浪國으로부터 靑衣處子 3人이 건너와 이들과 혼인할 때 「駒犢」⁸⁾를 데리고 왔다고 전하고 있는데, 이는 곧 옛날 제주의 말은 원산馬가 아니라 국외로부터 건너온 것임을 말해 주는 것이다. 『高麗史』에서는 古記에 의거하여 濟州馬는 모두 일본으로부터 건너온 것이라 하고 있다.⁹⁾ 이러한 기록들은 비록 신화전설에 불과할 뿐이지만 그래도 제주 말의 출현시기가 자못 일찍부터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耽羅國王世紀』에 의하면 옛날 제주에는 2대 建王 당시 「龍」·「白鹿」 및 「龜具珠珍」¹⁰⁾이 있었고, 5대 島濟王 때에는 「大龜」가 있었으며 아울러 「駒·犢」¹¹⁾ 등을 기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0대 湜王 때에는 「不死草」가 있었다고도 전한다.¹²⁾ 그리고 13대 偉王 당시 漢武帝는 古濟州에까지 사람을 보내어 「金光草」 및 「玉脂芝」를 캐고 돌아갔다고 전하기도 한다.¹³⁾ 19대 聖邦王시대(145~196) 古濟州의 교역물로는 橘·柑·枳·石榴·竹菌·龍棹·鳥糞·木柑·川練·石上芝·桑土芝·金·銀·玉石英·玳瑁·雲母·穿鱗·吼雷螺·決明具·不灰木·蚌珠·蝦皮·水犀·木牛·海馬·海鱗·千足·鰻魚

7) 《韓國地理》 pp. 71~73.

8) 《耽羅星主遺事》 p. 328 瀛州志

9) 延世大學 《高麗史》(中) 志第十一, 地理二, 1955, p. 54.

10) 《耽羅星主遺事》 p. 269 및 《耽羅國王世紀》二世建王條

11) 《耽羅星主遺事》 p. 274.

12) 前引書 p. 278.

13) 前引書 p. 283.

驛馬·牛·籠·珊瑚·珍珠 및 駿·良馬·驍驄 등이 있었다.¹⁴⁾ 그러나 옛날 제주 지역은 아주 협소한 지역이라 군사적 수요가 없었으므로 馬匹을 대부분 교통이나 운수이의 농경에 이용되었다. 근거에 의하면 19대 紀聖邦王 이전의 18대 知南王 시대 농경을 정치의 근본으로 삼도록 신라 逸聖王의 승에 따라 물을 끌어들여 稻田을 경작하고 수목을 불사른후 箭田을 경작하는 방법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토질이 대부분 浮土이므로 보리를 베고 粟을 파종한 후에도 반드시 사람이 직접 밟아서 맥리착지가 용이하도록 해야만 했다.¹⁵⁾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 볼때 제주에서 말을 수입한 것은 인력을 대신해 밭을 밟아주려는 데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말의 수입은 자연 畜馬를 연상케 한다. 그러나 당시 牧馬까지 행해지고 있었는지의 여부도 확실히 알 수 없다. 20대 文星王 시대에 화산폭발이 있었던 것 같은 기록이 있다. 『耽羅星主遺事』에는,

是時幼海波溝洶湧，而風烈雨淫，霧塞雷殷，鹵夜引火，陽焰燃浪，潮氣撥星，陰燐落浦，南奔鮮旗抱紅，北來鮮沫噴白，蛟涎灑若蜂涎，蛇毒射若虺毒，民物受傷者數年。……至漢昭烈章武帝元年辛丑，國人乃設壇于漢拏山北，致齋獻牲于三神之靈，自是海朗天晴，歲登人和¹⁶⁾

라 기재되어 있다. 만일 20대 文星王 이전에 이미 牧馬가 행해지고 있었다면 이러한 화산폭발로 인해 아마 전멸되어 버렸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러한 한라산의 화산활동은 옛날부터 있어 왔기 때문에 방목하고 있는 말들이 놀라 달아나 버림으로 일찍부터 방목에 손을 댈 수 없게 해 버렸는지 모른다.

그 후 제주의 대외교역은 船과 해산물 등이 그 주요 품목이었다. 그러나 馬를 百濟에 현상한 것은 唐 高宗(唐 高祖의 誤字인 것 같다: 譯者注) 武德4年(621), 즉 32대 聲振王 시대였는데, 그 馬種은 果下馬였다.¹⁷⁾ 果下馬란 키가 3尺으로

14) 前引書 pp. 291~292.

15) 前引書 p. 290.

16) 前引書 p. 293.

17) 前引書 p. 308.

果樹 밑을 걸어 다닐 수 있다고 해서 이처럼 불리워지는 것이다.¹⁸⁾ 李穡(1328~1390)은 「吾東方, 馬有二種: 曰胡馬, 後北方來者也. 曰鄉馬, 國中之所出也. 國馬如驢, 無足以很良馬.」¹⁹⁾라 하고 있으며, 李瀛(1682~1764)은 「北使之來, 必先擇細而善步者以歸, 謂之納馬. 聞彼中用爲婦女之乘, 故實之.」²⁰⁾라 말하고 있다.

이처럼 耽羅에서 百濟에 獻上한 말을 百濟에서는 다시 唐朝에 헌상하고 있다는 기록을 놓고 볼 때(역주자: 후자의 사실을 필자는 본문에서 특별히 밝히고 있지 않다.)이색이 위에서 지적하고 있는 鄉馬, 즉 한반도의 原産馬는 唐初이전 이미 제주에서 번식사양되어지고 있었음에 틀림없다.²¹⁾ 그러나 「耽羅國王世紀」에서는 33대 鴻王時代에 三神人의 古都지형을 그린 그림을 唐將 劉仁願에게 헌납했으며, 34대 處良王시대에는 新羅에 항복하여 方物을 받쳤고, 35대 遠王때에 가서는 高支昌을 신라에 파견하여 佛者 및 史禮를 익히도록 했으며, 36대 表崙王代에는 高適이 唐의 四川節度使까지 역임했다고 언급해 주고 있다. 高適에 대해 조사해 보면 그는 唐의 渤海郡 사람이었으나, 「耽羅本紀」에서는 耽羅人으로, 表崙王의 幼子라 하고 있으며, 新羅使를 따라 唐에 들어가 孟諸에 寄居하다가 渤海가 王號를 칭하게 된 후에는 唐에 충성하여 늙을때까지 돌아오지 않은 耆老라 하고 있다.²²⁾ 이러한 기제가 사실에 속하는 것이라면 당시 탐라와 唐간의 내왕은 이미 빈번했었다는 증거이다. 37대 洵王代에는 왕 스스로 新羅使臣의 신분으로 멀리 成都에 이르러 당 현종을 朝覲함으로서 그로부터 칭찬을 들은 바있다. 38대 致道王 때에는 南藩國人이 濟州에 표류하여 兵

18) 《增補文獻備考》(中) 兵考十七 馬政 東國文化社, 1959, p. 452 上

19) 前引書 p. 452. 上

20) 《星湖傳說》 上, 京仁書林, 1967, p. 99 아래 上果下馬條

21) 《後漢書》 東夷傳에는 '세有果下馬'라 말하고 있으며, 《三國志》에서는 '扶餘地産果下馬', 그리고 《增補文獻備考》 兵考 馬政에는 '高句麗馬小, 使登山之補'라는 말들이 있다. 《北史》에서는 '高句麗出三尺馬'라 하고 있으며 明 《一統志》에서는 '百濟出果下馬'라 하고 있다. 이러한 말들을 놓고 추론해 볼 수 있다.

22) 《耽羅星主遺事》 p. 313.

법을 배우려고 하자 耽羅人들은 그의 身上에서 火浣布2段을 압수한 적도 있다. 39대 勵王은 唐의 文科에 급제한 후 귀국하여 즉위하자마자 文學과 經典을 대대적으로 제창하고 있다. 41대 好恭王은 唐에 사신을 파견하여 方物을 바쳤고, 43대 敬直王 때에는 南海지역과 무역의 길을 열었으며, 44대 岷王代에 이르러서는 吳越에 貢馬함과 동시에, 고려 太祖에게도 方物을 바쳤다. 45대 自堅王때에도 또한 고려에 入朝하였는데 이대부터 每代 한차례씩 朝覲하였다. 以上 대외왕래 기록들 가운데에서도 말과 관련된 기사는 겨우 두 가지 즉 서기 621년 처음으로 百濟에 獻馬하자 백제는 다시 唐에 헌상하였다는 기사와 그 후 약 300년 후인 918년에 가서 두번째로 後百濟에 獻馬하자 후백제에서는 이를 다시 高麗에 헌상하였다는 기사 뿐이다.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交易 및 納貢기록들 가운데에서도 貢馬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그러므로 이 두가지 항목에 걸친 貢馬에 관련된 기록은 『耽羅國王世紀』에 인용하고 있는 사료들의 출처가 『泗泚史記』 및 『耽羅本紀』라는 사실을 증명해 준다. 『三國史記』를 통해 그 사실을 증명해 보면, 옛날 濟州에서 맨처음 百濟에 獻馬하자 百濟에서는 이를 다시 唐朝에 헌상한 시기는 百濟 武王 22年이었다. 그러나 『三國史記』의 이 해의 기사에는 「冬十月, 遣使人唐獻果下馬」²³⁾라는 내용만 있지, 濟州에서 獻馬한 것이라는 내용은 결코 없다. 그리고 두번째로 제주에서 後百濟에 獻馬하자 후백제에서 다시 吳越에 헌상한 시기는 고려 왕건이 즉위하였던 해였다. 그런데 후백제는 甄萱이 건립한 왕조로 『三國史記』列傳 제10 권원전에 비록 「(高麗)太祖即位, 萱聞之, 秋八月遣一吉浚閔郃稱賀, 遂獻孔雀扇及地理山竹箭. 又遣使入吳越進馬. 吳越王報聘, 加授中大夫.」²⁴⁾라는 기록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耽羅에서 獻馬하였다는 내용은 없다. 따라서 이 두책의 기록은 어쩌면 僞記일 가능성도 있다. 僞記의 사실적 여부는 이와 별개의 문제이지, 그렇다고 그것이 옛날 제주에 貢馬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말이 방목되어지

23) 《完譯三國史記》先進文化社, 1960, p. 448 武王22年條

24) 前引書 p. 785 貞明4年條

24) 《高麗史》(上) pp. 42~43.

고 있는지의 여부를 증명할 수 없을 따름이다. 이처럼 上述한 두 책에서 말에 대해서만 언급해 놓고 있을 뿐, 放牧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고려초에 이르기까지 제주에서는 아직 방목이 실시되어지고 있지 않았던 것 같다. 그렇지 않고 만일 방목이 실시되고 있었다면 이들 두책에서는 당연히 대서특필 했었을 것이다.

高麗 太祖 8年(925) 11月 탐라는 고려에 朝貢과 동시에 方物을 바쳤다.²⁴⁾ 고려가 신라를 대신하여 한반도를 소유하게 된 5년째(925)되는 해에 가서 탐라 太子 末老는 고려에 朝覲하였으며,²⁵⁾ 光宗 24年(973)에는 토산물까지 바쳤다.²⁶⁾ 成宗初 고려정부는 거란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 鴨綠津渡에 항구경비 지휘관을 설치하여 이를 勾當使라 불렀고, 그 후 耽羅 津渡에도 역시 이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언제 처음으로 설치하였는지는 史書上에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다.

穆宗 5年(1002) 6月, 제주에서는 또한차례 화산폭발이 있었던 것 같다. 「高麗史」志 第九 五行志三에 「耽羅山開四孔, 赤水湧出, 五日而止, 其水皆成瓦石」²⁷⁾라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10년(1007)에도 재발하였다. 즉 위에서 인용하였던 「고려사」同志에 「耽羅瑞山湧出海中. 遣大學博士田拱之往視之, 耽羅人言…山之始出也, 雲霧晦冥, 地動如雷, 凡土晝夜, 始開罅. 山高可百餘, 周圍可十餘里, 無草木, 烟氣罩其上, 望之如石硫黃, 人恐懼不敢近. 拱之躬至山下, 圖其形以進」²⁸⁾이라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두차례의 災禍로 말들의 어떠한 피해기록도 없는 것으로 보아 옛날 제주에서는 목종초에 이르기까지 아직 방목이 실시되고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반드시 화산활동으로 인해 말들이 해를 당했다는 기록이 나타나 있었을 것이다.

25) 前引書 p. 54 21年 冬 12月條

26) 《耽羅星主遺事》第4章(p. 108)에는 耽羅星主時代탐라에서 고려에 貢獻했던 사실들이 나타나 있다. 그런데 이는 《高麗史》耽羅誌로부터 인용한 것이지만 《고려사》에서는 이해의 공남사실에 관한 것을 찾아볼 수 없다.

27) 《高麗史》(中) p. 284. 穆宗5年 6月條

28) 前引書 (中) p. 248. 穆宗10年條

顯宗 元年(1010) 11月 거란이 대거 침입해오자 현종은 남으로 피난했다. 3년(1012) 6月에는 거란이 고려 6州를 取하였다. 8月에는 耽羅가 大船 2艘를 헌상하였다.²⁹⁾ 또한 현종 12年(1021) 7월과 그 이듬해 2월, 18년 6월, 20년 7월, 21년 9월에도 方物을 받쳤다. 顯宗朝 4차례에 걸친 朝貢기록들 가운데에서는 말과 관련된 기록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으며 당시 고려에서 얻은 馬匹은 오히려 女眞으로부터 들어온 것이었다. 그후 耽羅의 고려에의 朝貢은 德宗 3年(1034) 12月, 즉 靖宗 즉위년과 靖宗 2年(1036) 11月, 同王 9年 12月, 文宗 3年(1049) 11月, 同王 6年 3月 등이었다. 고려정부는 탐라의 歲貢을 橘 100包로 개정하고서는 이를 永制로 정하였다. 이듬해인 文宗 7年(1053) 2월에 탐라지에서는 牛黃·牛角·牛皮·螺馬, 櫃子, 海藻, 龜甲 등 方物을 받쳤고, 16年 2月과 22年 3月에 각각 方物을 진헌하였지만, 그 가운데에도 역시 馬匹을 진헌했다고 하는 기록은 없다.

文宗 25年(1071)에 이르러 고려 정부에서는 島陞監養馬 벌칙 및 馬匹을 보충해 놓는 법 이를테면 島陞가 관리소홀로 인해 말이 죽어버린 경우에는 旬當과 島吏에게 죄를 과하며, 또한 말이 늙거나 亡失하였을 경우에는 州鎭官이 公用의 屯田收入으로 사서 반드시 보충해 놓아야 한다는 규정을 반론하였다.³⁰⁾ 그후 2년째인 文宗 27年(1073)이 되는 해 11월에 탐라에서는 고려에 예물 및 名馬를 헌상하였다.³¹⁾ 당시 이러한 헌상이 旬當使의 催促에 의해서였는지의 여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헌상하고 있는 시간이 養馬벌칙 규정이 반포된 이후였으므로 旬當使가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으려고 했던 속셈이었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탐라의 獻馬사실이 放牧사실을 나타내주는 것인지의 여부는 확실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高麗史』에 기재된 바에 의하면 고려의 목장수는 龍壤, 龍西, 銀川, 羊欄, 左牧, 懷仁, 常慈院, 葉戶院, 葉戶觀, 江陰 및 東州 등 10個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³²⁾ 龍壤목장은 황해도 청주군에,

29) 前引書(上) p. 92.

30) 前引書(中) p. 805 馬政 文宗25年條

31) 前引書(上) p. 196 文宗27年條 15月條

32) 前引書(中) p. 805 馬政 諸牧場條

瀧西목장은 황해도 瑞興郡에, 銀川목장은 황해도 白川에 羊欄목장은 경기도 廣州郡, 江陰목장은 경기도 開城, 그리고 東州목장은 지금의 강원도 철원군에 각각 설치되어져 있었다. 탐라는 아직 목장소재지의 명단내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바, 단일 목장이 설치되어져 있었다고 해도 그것은 아다 島陸에 불과할 따름이다.

더구나 그후의 貢物을 통해 보더라도 文宗 31年 12月과, 33年 11月, 宣宗 9年(1092) 2月, 11年 6月(獻宗이 즉위한 다음 달), 獻宗 元年(1095) 7月, 肅宗 5年(1100) 11月, 6年 12월에 각각 고려에 조공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 文宗 33年 11月 耽羅 甸當使 尹應均이 大眞珠 二枚를 헌상하자 그 빛이 별처럼 빛남에 당시 사람들이 夜明珠라 했다³³⁾고 하는 명백한 기사 이외에는 모두가 方物 혹은 土產物이라 기재되어져 있을 뿐 馬匹의 진상과 관련된 기재는 찾아 볼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은 肅宗 10年(1105), 탐라가 郡으로 편제되어져 정식으로 고려의 판도가 될 때까지 계속되어졌다.³⁴⁾

제주가 耽羅郡으로 편제된 후, 放牧이 있었는지 여부는 자세히 알 수 없다. 고려 毅宗 7年(1153) 耽羅郡은 縣으로 강등되었으며, 이때부터 不法의 官吏들이 마음대로 활개칠 수 있는 지방이 되어 버렸다.³⁵⁾ 賢宗 7年(1211)에 가서는 또 탐라현의 石淺村을 歸德縣으로 하였다. 縣의 증가는 그 지방의 번영을 의미하는 것도 되지만, 그와는 반대로 官衙가 증가함에 따른 곤혹도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일례를 들자면, 당시 제주의 15세 이상의 남자에게는 해마다 豆 10斗를 헌납하도록 하고서는 衙에서는 말 한필만 歲貢으로 헌상하고 있다.³⁶⁾ 高宗 45年(1258년) 고려 조정에서는 제주에서 貢馬해 온 말과 崔誼가 기른 胡馬를 文武4품 이상의 관직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³⁷⁾ 이러한 단편적인 기록을 통해서 볼 때 옛날 제주의 貢馬는 甸當使가 마음대로 민간의 馬匹

33) 前引書(上) p. 193 文宗33年 11月 壬甲條

34) 前引書(中) p. 297 肅宗10年條

35) 《高麗史》(上) p. 382, 毅宗22年 冬11月 丁丑條에는 耽羅安撫使 趙冬曦가 入覲하여 ‘…壞地膏腴, 經費所出. 先是貢賦不煩, 民樂其業. 近者官吏更不法, 賤者良守等謀叛. ……」이라 한 말이 실려져 있다.

36) 《耽羅星主遺事》 p. 112.

을 압수함으로 해서 시작되어진 것 같으며, 耽羅郡이 縣으로 降等한 이후로는 더욱 극렬하였던 것 같다. 목장방목의 설치에 관해서는 특별히 인용할 만한 기록들이 없다.

Ⅲ. 耽羅牧場의 設置 및 經營과 貢獻

『高麗史』地理志에는 「元宗 11年(1270) 叛逆 金通精이 三別抄를 이끌고 제주에 입거하여 亂을 일으켰으며, 4년후에 왕은 金方慶에게 명하여 이를 평정하도록 했다. 忠烈王 3年(1277, 元世祖 至元 14年)에 元은 여기에 목장을 만들었다.」³⁷⁾라 기재되어 있다.

이 기록이 옛날 제주에 목장이 설치되었던 것과 관련된 최초의 기록이다. 또한 李瀾은 『星湖僿說』에서 제주에 목장이 설치되기 시작한 시기는 元世祖 시대부터라고 명백히 말하고 있다.³⁸⁾

그러던 元世祖는 왜 제주를 선택하여 목장을 만들었으며, 고려는 왜 이를 선택하지 않았는가? 필자의 생각으로는 文宗의 島陞監養馬法의 반론시기가 完顔部가 흥기하기 일년전이었던 만큼, 고려가 馬政을 중시한 것은 곧 女眞의 대규모활동에 자극 받아서 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숙종이 제주를 병탄하였던 것은 完顔部 島雅束의 기병이 이미 定州를 進逼한 2년째되는 해였다. 비록 숙종이 제주를 병탄한 이유가 곧 馬匹을 얻기위한 것이었다고만 볼 수는 없지만, 의거할 만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尙當吏가 馬匹을 마음대로 빼앗을 수 있었던 점으로 볼때 결코 이와 무관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한라산의 화산활동은 穆宗時 두 차례에 걸쳐 폭발이 있는 후 두번 다시는 없었다. 그러므로, 한라산록의 초원도 목장설치에 적합 할만큼 자라났다. 그러나 일찌기 고려정부가 일찌기 이곳에 목장을 설치하지 않았는데, 그 원인은 아마 養馬法과 관련이 있었던 것 같다. 일찌기 李瀾은

37) 《高麗史》(上) p. 495, 高宗45年 5月壬戌條

38) 前引書 (中) p. 297.

39) 《星湖僿說》(上) 경회출판사, 1967, p. 129, 牧場條

馬政宜倣北俗爲得。塞外育馬，不飼烹菽，不飲熟粥，任其自吃山野蘆葦；不蓋以屋，不被以鷹，任其露處，雖無肥澤，性剛勇，耐饑寒，可以不飽而遠達也。牡者皆驅，故馴良易；使脫羈勒，不逸不相蹄嚙，一人驅數十頭，而惟意不亂群，騎馳則不待銜勒，隨人指向，雖虎豹當前，亦敢衝冒也。我(朝鮮)國之養馬也，溫飽居止，一與人同，故疾驅半晌，已口沫而汗珠，性惡善鬥，亂伍群嘶，制御無策也。北人無事，則完養其蹄，駿奔而無缺；我(朝鮮)國蹄鑿之術，不知創自何人，而無馬不然，蹄爲之不勒，鑿缺則廢行，若在軍旅間，何瑕施此爲也…不獨於此，商賈之畜，無一日之息，馬易衰疲，而無壽者；貴戚之養，不習馳驟，緩急不可賴也。⁴⁰⁾

라 하여 養馬法이 부당하였음을 언급한 적이 있다. 養馬는 養人과 같은 것이 라 한즉 放牧이 없었음을 분명하다. 그런데 養馬에 있어 방목이 없었던 것은 어떻게 養馬해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남해상에 위치해 있는 옛날 제주는 비록 말을 판매하기 위해 기르면서도 牧養法은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元朝가 제주에 목장을 설치한 것은 이미 제주도가 放牧에 적합지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만은 결코 아니었다. 至元 3年(고려 元宗 7年·1266년) 11月 元 世祖는 兵部侍郎 黑的과 禮部侍郎 殷弘 등을 고려에 파견하면서 고려 정부로 하여금 사람을 파견하여 이들의 향로역할을 해줌으로써 詔書를 전달 하여 日本을 招諭하는 데 편리하도록 도와줄 것을 요구한 적이 있다. 이에 고려에서는 宋君斐을 향도로 파견하여 元의 사신들과 함께 거제도에 도착했지만, 마침 풍랑이 거세게 일어 도중에 돌아왔다.⁴¹⁾ 그 후 원 정부의 압력에 못이겨 고려정부에서는 다시 起居舍人 潘阜으로 하여금 國書를 가지고 日本으로 가도록 했으나(元宗 9年, 1268년), 일본측의 어떠한 회답도 얻지 못하고 그냥 되돌아 왔다(七月). 이에 원 세조는 潘阜의 보고를 불신하여 다시 고려정부에 명하여 향도를 파견하여 黑的 및 殷弘과 함께 日本으로 가도록 하였다

40) 前引書(上) p. 124 養馬條

41) 《高麗史》(上) pp. 522~523 11月 癸丑條 및 同書(下) p. 830 列傳 趙彝傳

(同年 11월). 그들은 대마도에 도착하여 島民 塔二郎과 彌三郎 두명을 포로로 잡고 이듬해 4월 元廷으로 송치했다. 원 세조는 9월에 이들을 다시 대마도로 되돌려 보내주도록 고려정부에 命함과 동시에, 牒帳을 가지고 다시 日本으로 가도록 했으나 역시 일본의 어떠한 반응도 없었으므로, 이에 세조는 일본 정벌을 계획하게 되었다. 그래서 고려 원종 11년(1270) 11월, 元은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 고려에서 屯田政策을 실시하기에 이르렀고 동시에 日本을 경략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元宗 14년에 이르러서는 제주를 탈취하여 그 전진기지로 삼았다. 당시 제주를 점거하고 있었던 세력은 해상에서 元朝에 반항하던 原高麗軍 삼별초부대였다. 삼별초군은 러·원연합군 즉 金方慶과 忻都 양군 대에게 소멸된 후 김방경 부속의 천여명과 忻都부속의 오백명이 각각 제주에 주둔하기 시작했고 2개월 후(元宗 14年 6月) 元朝는 失里伯을 招討使로 파견함과 동시에 이백명을 더 달려보내 주둔시켰다. 당시 제주의 貢賦는 毛施布(苧布) 百疋이었지만 馬匹과 관련된 기재는 찾아볼 수 없다. 2년째 되던 해(麗·元연합군이 제주에 입도한 이듬해, 즉 고려 元宗 15年 10月:) 10월 세조는 결국 日本 정벌길에 나서게 되었으나 뜻밖에 폭풍우를 만나 되돌아 올 수밖에 없었다.

至元 12年(1275)10月 세조는 金光遠을 慶尙道 都指揮使로 임명하여 전함을 修造케 하고 설욕전에 대비할 것을 命하였다. 이때 南宋戰에 투입되었던 元軍은 마침 臨安으로 쫓겨나 집중공격을 당하고 있었을 때였으므로, 이미 세조는 먼저 南宋을 평정한 후 日本 정벌에 나설 것을 결심하였다. 이처럼 일본정벌 계획이 변경됨으로 말미암아 고려지역에서 준비하고 있었던 전함 및 화살 등의 제조 역시 중단되어지게 되었다.⁴²⁾ 至元 13年(1276)에 이르러 元은 塔刺赤을 탐라 達魯花赤으로 파견하여 水山坪에 蒙古馬 160匹을 방목하도록 했다.⁴³⁾ 이것이 바로 史書에 보이는 제주의 첫번째 牧馬사실이다. 至元 14年(忠烈王 4年) 元은 제주를 고쳐 목마장으로 하였다.⁴⁴⁾

42) 金庠基著, 《高麗時代史》東國文化社, 1966. p. 604.

43) 《高麗史》(上) p. 572, 世忠烈王 2年8月 丁亥條

44) 前引書(中) p. 97, 志第十一, 地理二, 耽羅條

元朝가 塔刺赤을 파견하여 牧馬하도록 한 것은 元人이 제주를 이상적인 牧馬장소로 발견해 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忠烈王 3年 제주를 고쳐 牧馬場으로 삼았다는 사실은 元人이 제주에 들어와 몇년동안을 지내면서 결국 제주도가 바로 牧馬에 가장 적합한 지방이라는 점을 인식했음을 충분히 드러내 준다.

제주도는 元人들의 眼中에 일본의 동정을 감시할 수 있는 하나의 전진기지였다. 이 점이 바로 원조가 제주를 탈취하여 耽羅國招討司를 설치하고, 심지어 屯兵정책까지 실시하게 된 그 주요 목적이었다.

至元 11年(元宗 15年, 1273年) 春正月에 元朝는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 總管察忽監을 보내 전함 300척을 건조하도록 하였다. 이때 전함건조에 따르는 工匠이나 役徒, 그의 일체의 物品 모두 고려정부에서 제공토록 하였다. 또한 이러한 전함의 건조는 전라도 및 탐라에서 책임지도록 규정까지 했다. 『高麗史』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제주에서는 元朝의 剝削에 따르느라 이미 山窮水盡의 지경에까지 달했다고 한다.⁴⁵⁾ 至元 12年(忠烈王 元年, 1275年) 6月 元朝는 耽羅國招討司를 耽羅國軍民都達魯花赤總管府로 改稱함과 동시에 제주의 원래 통치자였던 星主·王子 및 토호 등에게 원의 정무에 참여할 것을 명하였다. 원조의 이러한 조치가 비록 옛제주의 전통적인 통치자들이 권위에 대해 모종의 사실 승인 및 우대를 주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사실 일종의 분리정책, 즉 제주로 하여금 元朝의 장악하에서 半自治를 실시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고려정부와 분리시켜 元의 또다른 하나의 식민지가 되게 하려 했던 것 같다. 元朝가 제주를 직접 경영하려고 결심한 그 주요원인은 元宗 15年 일본정벌(일본에서는 이를 「文永之役」라 부른다)에 실패한 후 일본의 보복이 두려워 그 전진기지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일면 일본을 감시하고 일면 다시한번 일본을 정벌하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는 데에 있었다.

至元 13년에는 제주목장이 東·西阿幕에 설치되어 達魯花赤의 직접 관할 하에 두었다. 원에서는, 島外지역과의 交通을 원활히 하기 위해 山西(한라산 서쪽)의 唐浦 및 山南의 西歸浦에 出入항구를 만들었고, 아울러 수차례

45) 前引書(上) pp. 560~561.

罪人들을 제주도로 들여보내 항구 개발 등의 役徒로 삼았다. 至元 17年(忠烈王 6年 8月), 耽羅 達魯花赤이 勅旨를 받들어 전함을 건조하기 시작하자, 제주도민들은 제2차 일본정벌을 지원하기 위해 또다시 고역에 시달려야 했다. 至元 19年 2月 元の 2차 일본정벌(日本에서는 이를 「弘安之役」이라 부른다) 역시 실패로 돌아가자 또 戌軍 1400명을 파견하여 주둔시켰다. 이처럼 元은 兵을 탐라로 파견함과 동시에 總管府를 軍民安撫司로 개칭하여 한편으로는 전진기지의 防務를 더욱 강화하는 데 힘썼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3차 일본정벌을 적극적으로 준비하였다.

至元 31年(忠烈王 20年. 1294년) 元 世祖가 죽자 元의 日本정벌 행동도 이에 중단되었다. 그러자 忠烈王은 그해 11월 耽羅를 회수하였고, 이듬해 4월에 가서는 耽羅를 濟州牧으로 고쳐 牧使와 判官을 파견하여 관리하였다. 그 후로부터 제주는 명의상 고려에 예속되었지만, 그렇다고 元의 군사 및 교통상에 있어 가장 중요시 하고 있는 馬匹이나 牧場을 방치한 것까지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를테면 元 成宗 元貞 2年(忠烈王 23年) 2月 元이 斷事官을 제주로 파견하여 馬匹을 조사케 하도록 했던 例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忠烈王 26年 고려정부에서는 제주에 東西道縣을 설치하였지만 奇皇后는 水山坪에서 말과 소를 放牧하였다. 이듬해 3월에 元은 다시 제주를 회수, 軍民萬戶府를 설치하여 직접 관리하였다. 그러나 두달도 채 못되어 다시 폐지하였다. 그후 成宗 9年(忠烈王 31年) 元은 제주를 다시 고려에 돌려준 후로부터 원이 멸망하기까지 아무런 변동이 없었다.

元이 탐라를 건설한 주요목적은 그 군사용도를 위한 것이었다. 예를들면 土城의 증강은 일본의 반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고, 항구의 건설은 牛馬나 農產品, 그리고 수산물 등의 도외 수출 및 전함정박에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목장의 건설도 그 기동부대를 배양해내기 위한 목적에서였다. 그 외 神堂이나 寺廟의 건립 역시 적지 않았다. 이러한 건설이 비록 당시 元朝의 殖民上의 필요에 의한 것이었으나, 그것은 元이 패망한 후에도 제주에 여전히 중요한 작용을 해주고 있어 왜구의 격퇴 및 馬匹의 제공에 커다란 기여를 해주고 있기도 한다.

元이 耽羅에서 牧馬했던 사실은 단지 두 차례 뿐이다. 하나는 忠烈王 2年 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忠烈王 26年이었다. 충렬왕 2년의 방목이 최초이며, 26년의 牧馬는 다만 2년의 사실추가에 불과할 뿐이었다. 따라서 그 목장의 건설은 당연히 충렬왕 2년 최초의 放牧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耽羅의 東·西阿幕에서는 牧胡들에 의해 牧馬되었다. 목호는 모두 몽고인들이었으므로 그들이 養牧방법은 塞外之法에 따라 행하였다. 李圭景은

北夷牧馬，自有其法，可學者也。按泰安齋大亨夷俗，記夷人畜產，惟牛羊犬馬駱駝而已。其愛惜之勤，視兩人之愛惜田禾尤甚，其愛惜良馬，視愛惜他畜尤甚。見一良馬，即不吝三四馬易之。朝視察撫，剪拂珍重，出入不以騎，惟畜其力，以爲射戰陳所需而已。凡馬至秋高則甚肥，此而急馳驟之，不三合而馬斃矣。以其當未實也。於是擇其優良者，加以控馬之力，每日步馬二三十里，俟其微汗，則素其前足，不俟之跳踴躡躅也。促其御害，不令之飲乾草也。每日午后，控之至晚，或晚控之至黎明始散之牧場中，至次日又復如是。控之至三五日，或八九日，則馬之脂膏皆凝聚於背，其腹小而堅，其腴大而實，向之青草，廬勝至此，皆堅實疑聚，即盡力奔走，而氣不喘，即經陳七八日，不足水草，而力不竭。我中國不知控馬之方，往往乘肥馬以涉遠道，即馬之死者十而九矣。故馬不在肥而實。大抵馬之駒……每一年一產。產於春月者爲佳。……其牧馬之術，專在於控之一法，我東(指韓國)牧法，尚不如中原。其養法一如人同，故百病叢生，又未嘗戰陣馳逐，長立權上，其安閒度日，後過於人，故驥步一場，白汗遍身，疑結如泡。若行四五十里，諸病俱生，致斃者甚多。其放牧芻水之節，宜有一定恒式，控步之法，宜倣北俗，絕其火食，然後始可致遠無病⁴⁶⁾

이라 하여 목호들은 말을 대단히 소중하게 여기며 심지어 馬의 걸음걸이나 식사까지도 조절하면서 다루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그는

大抵牧馬之政，宜倣北俗。塞外畜馬，不喂烹菽，不飼熟粥，任吃山野蘆葦，不蓋以屋，不被以蒿，任其暴露。雖無肥澤，性自剛勇耐饑寒，可以不飽而馳走。其御

46)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下), 東國文化社, 1959, pp. 36~37.

之之法，隨人指向，欲馳則俯身，欲止則直坐，欲左則偏跛左足，欲右則偏跛右足，不假鞭轡，終驅馳，惟意所在。我人(指韓國)則養馬居止溫飽，亦與人同，故馳驅半飽，已口沫而汗珠，性惡善聞矣。北人無事則完養其蹄，駿奔而無缺，然亦釘蹄，自釘蹄之后，蹄漸不勒而易缺。……作俑者，即病馬之一罪人也。壯孝宜驕，北人馴馬無異訓人，其驅馳有範。中原則上自天子，下至庶人，乘馬無牽夫，年持一鞭，任自行馬。我東(指韓國)則雖臺隸，騎則必牽，拘制馬行，不得自由，素稱逸立，難盡其藝，動值銜提，而況揉曲馬頸，接於前藤，口箝鑽銜，操繩抑揚，四肢拘臂，項背牽引，自致踟蹰，橫逆驚駭，矯其心性，喪其天趣，步法無異鷩鷩，此欲馴而反紊者也。……世無不教而能者，教之不以其道，以至不卒教，則雖天馬龍駒，漸入於百鞭一步之域矣⁴⁷⁾

라 하여 목호들의 방목 방법 및 말을 길들이는 방법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목호들은 養馬法에 익숙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몽고말의 순종을 보전하기 위해 果下馬와의 相亂을 금지하였다. 李瀛은 이에 대해 元인들이 물러난 후로 제주에 말들은 모두 驚劣하고 細少하며 점점 惡弱해져 버렸는데, 이는 馬種을 保存하는 방법을 잘 몰랐고 靚鬃은 말이라면 모두 服役에 끌려나가거나 심지어 果下馬와 相亂한 등의 결과에서 초래되는 것이라고 한탄까지 한 적이 있다.⁴⁸⁾

목호들 관리하에서의 제주 馬의 양육은 확실히 성공적이었다. 그러므로 앞에서 서술한 肅宗大王的 「耽羅地圖」 가운데에서는 제주 馬를 가리켜 「驪駒駿種」이라 하였고, 權近의 耽羅詩에서는 「龍種」이라 하였으며 또한 金宗道の 毛羅歌에서는 「驪駒」라 각각 말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제주馬의 우수함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李瀛은 「그 제주産 馬의 形貌나 性氣는 다른 지방에서 産出된 말과는 달리 보는 즉시 식별해 낼 수 있다. 太宗(李朝)때에 제주馬를 明朝에 進貢하자 成朝가 이를 보고 이르기를 “이것이 바로 天馬일지라”⁴⁹⁾고 까지 했다고 전해주고 있는데, 天馬란 곧 제주産 馬를 가르켜 하는 말이다. 아울러 牧胡들의 관리하에 있을 당시에 濟州馬는 줄곧 가장 우수한 품종들만을 보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李元鎮은 「耽羅志」 土産馬 條에서 鄭

47) 前引書(上) pp. 788~789.

48) 《星湖漫說》 p. 124.

49) 前引書(上) p. 186.

以吾의 말을 인용하여 「馬畜之所孳，猶晉之屈產，非諸州之所能擬也，舉出產馬之特多」⁵⁰⁾라 하고 있으며 李建은 「濟州風土記」에서 …「夏秋 풀이 자라 있을 때에는 말이 굶어 죽을 염려는 없지만 겨울에서 초봄까지 풀이 枯死해 있을 시기에는 굶어 죽어가는 말이 헤아릴 수 없다」⁵¹⁾고 하고 있다. 이 두가지 말을 놓고 비교해 보면 목호들은 李朝의 牧子들에 비해 겨울철에서 초봄에 이르는 枯草蒨에 말이 굶어 죽어버리는 손해를 예방하는 면에 있어서는 아마도, 수단이 한수 높았던 것 같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통해 목호들이 방목상 馬을 보호하는 방법 등은 결코 朝鮮의 牧子들에게 전수해 주지 않았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그래서 李湏이나 李圭景 등이 朝鮮 牧子들의 養馬 방법이 목호들과는 달리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을 눈여겨 살펴 보았더니 바로 이런 의미에서 하는 말인 것 같다.

元은 世祖 至元 11年(고려 元宗 14年, 1273년) 4월 고려정부의 협조아래 삼별초란을 평정함으로써 탐라를 점거하면서부터 至元 14년(1277)에 이르러서는 탐라를 목마장으로 삼는다는 것을 선포하고서는 東·西阿慕에 목마장을 설치하여 정식 放牧에 들어갔다. 그후 明 洪武 7年(恭愍王 23年 1374년) 8월 고려정부가 三道 統使 崔瑩을 파견하여 군대를 이끌고 牧胡를 토벌하여 제주의 亂을 평정함으로써 원의 101년간에 걸친 監牧은 완전 소멸됨에 이르렀지만 그동안 제주에서의 牧馬기간은 장장 97년에 달하였다. 그간 비록 忠烈王 20年 5월에서 27年 3월까지, 그리고 31年에서 忠肅王 5年(1318년)까지 및 그리고 원이 명에 망해버려 제주가 고려에 귀속된 공민왕 18年(1368)에서 최영이 원의 감목을 소멸시킨 同王 23年(1374년) 8월에 이르기까지 제주를 3차례에 걸쳐 고려정부는 제주에 대한 주권행사로 牧使를 파견하여 제주를 관리하였지만, 養馬 및 방목권한은 여전히 東·西阿慕을 관리하는 哈赤의 牧胡들 수중하에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元 成宗 貞元 2年(忠烈王 22年, 1296년) 즉 제주가 이미 고려에 귀환된 기간에도 元은 여전히 斷事官을 제주로 파견하여 放牧을 감찰케 했으며, 大德 4年(忠烈王 26年, 1300년)에 가서 元 奇皇后가 또다시 濟州에 방목을

50) 《耽羅星主遺事》 p. 430 耽羅志 土產條

51) 前引書, p. 545 濟州風土記

했던 점 그리고 洪武 7年 7월에 가서 元이 이미 明朝에 격퇴되어 中原에서 쫓겨나는 입장이었는데도 고려정부는 아직도 사신 韓邦彥을 파견하여 牧胡 石迭里에게 馬 3천여필을 요구하고 있는 사례⁵²⁾ 등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다.

元의 제주에서의 放牧은 고려인들의 손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 牧子(牧胡)를 파견하여 자체적으로 種馬를 선택했다. 심지어 고려인(탐라인도 포함되는 것 같다.)들의 목장 근접까지도 금지했으며, 목장은 곧 元 목호들의 거주지가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풍부한 養馬나 馴馬의 경험을 바탕으로 순종의 蒙古種馬를 길러냈으며 馬匹의 충분한 수요를 확보하여 元의 군사 혹은 교통용도로 제공해주고 있었으나, 고려정부는 이러한 牧馬利權을 分亨하지는 못했던 것 같다. 이점 역시 忠烈王 14年 2月 「置馬畜滋長別監」이란 글 가운데 「耽羅는 元의 別屬이다」라 하는 말이나 恭愍王代에 百官들에게 馬을 내어오도록 했으나 제주목장에서부터 징집되어온 말은 없었다는 사례 등을 통해 증명해 낼 수 있다.⁵³⁾

그러나 元이 탐라목장에서 번식한 馬匹은 至元 31年(忠烈王 20年) 5月 甲寅에 400匹⁵⁴⁾이 보이는 것 이외 별다른 기록은 없다. 그런데 『高麗史』에 同年 11月 庚戌條에 「耽羅王子 文昌裕·星主 高仁攄에게 紅鞵, 牙笏, 帽, 蓋, 靜 각각 하나씩을 하사하였다. 탐라가 이제 우리에게 돌아오는 故로 이것을 하사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元에 進馬하는 것이 이로서 두절되는 것은 아니다」⁵⁵⁾라고 한 기록을 통해 볼 때 星主나 王子는 비록 탐라의 고려 귀환에 공이 있어 忠烈王의 하사를 받고 있으나, 元廷에 대한 獻馬는 아직 중단되고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元에 進獻하는 馬는 탐라목장에서 길러낸 馬가 아니라 탐라인들이 畜養한 馬였다.

사실 元은 제주에서 牧馬를 실시한 후로 제2차 일본정벌(弘安之役) 이외에는 특별한 用兵으로 인한 목장의 馬匹을 필요로 한 적은 없었다. 따라서 元이 제주목장에서부터 회수해간 말은 그리 많았다고 볼 수 없다. 牧胡들은 養馬기술

52) 《高麗史》(上) p. 865 秋7月 乙亥條

53) 前引書(中) pp. 806~807.

54) 《高麗史》(上) p. 634.

55) 前引書(中) p. 635.

에 뛰어났고, 元廷에서 역시 징집해가는 말이 많지 않았으므로 제주목장의 말은 자연히 증가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말들은 元이 망한 후 자연 고려의 소유로 돌아갔다. 이는 비록 당초 元이 예견치 못했던 일이지만, 고려정부로서 볼 때는 비단 우량품종의 馬種을 보존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황재까지 하게 된 셈이다. 그러나 고려정부 역시 元이 明朝에 축출된 후 26년(1392년) 후에 가서는 李氏朝鮮에 멸망 되어져 버림에 따라 元이 고려에 남겨 놓았던 馬匹 역시 자연 이들의 소유가 되어 버렸다. 『高麗史』기재에 의하면 공민왕 23년(1374) 明은 이미 濟州馬 2·3萬匹이나 얻어갔음을 알 수 있다.⁵⁶⁾ 이에 대해 李睟光(1563~1628)은 「世宗朝(1419~1450) (明)에 馬을 一萬匹이나 進貢해도 부족해서 다시 요구해 오고, 五千匹을 진상해도 부족해서 다시, ……國(李氏朝鮮)初에는 그 物力이 왕성하였음을 볼 수 있었으나 지금은 도저히 미칠 바가 못된다.⁵⁷⁾」라 하여 개탄까지 한 적이 있다. 비록 당시 明朝에 진상한 말이 꼭 濟州馬 뿐이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공민왕 23년 이래 明은 계속 고려 및 조선에 대해 제주산 말을 요구해 오고 있었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元이 濟州牧馬에 끼친 공헌은 실로 지대한 것이었다. 그리고 최초 水山坪(지금의 旌義)에서 시작한 放牧이 東·西阿幕 두개 장소로 분할되어 성공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하면서 제주지방에서의 목장은 大靜 3개, 山屯, 牛屯 乙丙別屯, 淸馬別屯 및 濟州牧 6개소로까지 확산되어져 갔는데, 이러한 사실 역시 元의 제주에서의 성공적인 牧政으로부터 연유하는 것이다.

IV. 結 論

옛날 제주는 독립국이었고 또한 남해상에 고립되어져 있어 史書에 기재된 내용은 너무나 적은 편이며, 기껏 사실에 근거하여 論한다고 해야 「고려사」 등 서너권의 책들 뿐이다. 그런데 이들 서적들마저 기록이 너무나 간략하여

56) 前引書(上) p. 862 夏四月戊申條

57) 《增補文獻備考》(中), p. 454 世宗3年條附引

상세한 근거를 찾아내는 데는 쉬운 어려움이 따른다. 本文에서의 제주 馬에 대한 고찰 역시 유한한 자료로 말미암아 그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이러한 객관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옛날 제주에는 滅種의 馬, 즉 果下馬가 있었으며, 이러한 말들은 당시 인력을 대신하여 밭을 밟아주거나 물건을 운반해주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더구나 옛날의 제주는 남해에 孤處해 있어 攻防은 주로 선박을 이용하고 있었으므로 戰馬의 수요는 그리 필요로 하지 않았었다. 따라서 말의 수량 역시 반드시 많아야 할 필요도 없었다. 뿐만 아니라 옛날 제주인들은 養馬기술이 뛰어나지 못하였는 데다가 더구나 화산활동까지 겹쳐 養馬者는 있었어도 放牧은 결코 없었다. 제주에 목장이 설치되기 시작한 것은 元朝가 至元代에 이르러 일본을 정벌할 목적에서 제주를 전진기지로 삼은 후 이곳이 목장설치에 적합한 지역임을 인식하면서 부터이다. 그래서 牧養하는 말들은 주로 교통 혹은 군사상의 요구로 인해 우량품종들만을 보존해 나가게 되었고, 아울러 세대를 이어가면서 축적된 풍부한 목마경험과 화산활동의 종식에 힘입어 그 풍족한 성과를 거두어 들이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를 마음껏 누린 것은 元이 아니라 도리어 中原지방으로부터 元을 축출시킨 明朝였다. 이러한 점은 蒙元이 제주에 목마를 시작할 당시만 해도 미처 생각치 못했던 사실이다. 반면 한반도의 입장에서 볼 때 濟州馬場에도 비록 우수한 馬種들이 남아 있었기는 하나 그들은 牧養法을 직접 전수해 주지 않았었으므로, 元이 물러나고 난 후에는 세대가 흐를수록 馬匹은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이를테면 조선 영조 24년(1748) 당시 신하들이 濟州의 馬는 장차 無類할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다고 陳言하자,⁵⁸⁾ 34년에 가서 王은 義州·會率으로부터 淸馬를 사들여 耽羅로 보내 放牧함으로서 取種하도록 命하였다. 그러나 辛巳에 가서 洪鳳漢은 種馬를 탐라로 보내 取種하도록 해보아도 결코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제언하자, 이에 왕은 種馬들을 기타 다른 목장으로 分置하도록 命하였다.⁵⁹⁾ 46년에 이르러 왕은 太僕寺가 濟州判管이 馬三匹을 進貢해 왔다고 上奏하자 이를 보고서는 말이 너무나 疲劣함에 도로 갈

58) 前引書, p. 456.

59) 前引書, p. 457.

고 가도록 請하기까지 했다.⁶⁰⁾ 이러한 사실을 통해 제주의 馬는 갈수록 상황이 악화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元朝의 잘못이 아니라, 고려 및 조선시대의 馬政이 元의 牧胡들처럼 養馬에 뛰어난 인재를 양성해내지 못했고, 아울러 그 방법 역시 서툴렀던 결과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이다.

60) 前引書, p. 457.